

# 휘청이는 지역건설업계, 레미콘발 위기 오나 '초긴장'

### 한노총 광주·전남 레미콘운송노조 운반비 인상 요구 24일 총파업 예고 올초 민노총 이어 한노총까지...유동성 악화 속 납품 중단 땀 타격 우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자금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휘청이는 지역 건설업계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레미콘 운전기사들이 레미콘 제조사측에 운송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레미콘 업계 갈등'이 레미콘 납품 중단으로 이어져 지역 건설업계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20일 한노총 레미콘운송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7일 레미콘 제조사들과 진행한 8차 협상에서 가격 협상이 결렬돼 24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노조는 레미콘 제조사들에 '단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협상은 올해 초 민노총 산하 레미콘 회사들이 레미콘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한 것과는 다르다. 올해 초 납품단가 인상은 민노총 산하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레미콘회사가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반면 한노 소속 레미콘노조원들은 직접 본인의 차량을 사용해 레미콘 제조회사(사측)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일명 '자입 차주'들이다. 이들은 레미콘회사에게 차량 1회 운영마다 매겨지는 단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노 소속 레미콘 기사들은 올해 5월 10일부터 레미콘 제조사와 단가협상을 시작했다.

노조측의 요구는 1회 운영당 6만 3000원이었던 단가에서 1만 400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측은 6000원 이상 올리기 힘들다는 최종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노조 측은 최소 7000원~1만원 사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현재 단가(1회 6만 3000원)를 받으면 연봉 5500만원 수준인데 차량 비용 2억원, 감가상각 비용(1000만원), 보험 (500만원), 대출 이자(700만원), 관리·유지비 등을 포함하면 절반 가량 밖에 남지 않는다"면서 "과거 1년에 200원~1000원 꼴로 운반비가 인상돼 그동안 인상되지 못했던 부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레미콘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광주지역 한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최근 지역 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업체들의 경영도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레미콘 운송비까지 인상하면 업체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종 협상이 결렬됐지만, 노조측은 "24일 총파업 개시 전까지 사측과 협상을 계속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마지막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당장 24일 레미콘 기사들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중견건설업체들이 법인회생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레미콘이 멈춰서면 지역 건설업계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동성 위기와 부동산 시장 불황, 고물가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발 위기로 공사가 중단되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다시 유동성 자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레미콘 회사가 노조측의 단가인상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인상 여파는 필수적인 화물 등 또 다른 업종에도 미치기 때문에 결국 건설업계는 현재



20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시멘트 타설을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광희 한국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은 "공사 현장에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특히 최근 들어 업체들이 계약을 무시하고 단가 인상만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잦아 피해와 부담은 오롯이 건설사가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광주·전남지역 건설사의 도산, 법정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까닭"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건설사와 업체, 노조 모두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치료비·사업자금 필요해" 수천만원 빌려 탕진

### 광주서부경찰, 60대 구속

'치료비', '사업 자금' 등을 핑계로 지인 7명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0일 60대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지인 등 7명에게 4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들에게 "가족이 암에 걸려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 이

유를 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고소됐으나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8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하고 도주 우려 등을 들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빌린 돈을 술값 등 유희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또...전남 경찰 '음주 비위' 잇따라

### 시민과 폭행 시비 휘말리고 음주운전 사고까지...2명 직위해제

만취한 일선 현직 경찰이 시민과 폭행시비에 휘말리고, 현직 파출소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등 전남지역 경찰관들의 '음주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목포경찰은 20일 전남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사를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경사는 이날 새벽 1시 20분께 목포시 상동 거리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항의하는 차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경찰조사에서 "차주와 일면식이 없으며 술에 취해서 별인 행동"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남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B경감(파출소장)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시민에 의해 신고된 B경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대를 잡았다.

전남경찰청은 A경사와 B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처분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왜 쳐다봐" 행인 폭행한 10대

술에 취해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중상을 입힌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20일 대학생 A(19)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 B(29)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7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동종전과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건방지다"며 동료 살해 40대 징역 23년 선고

### 광주지법, 5년간 보호관찰도

'건방지다'며 1년 여 동안 같이 일해온 동료를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10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

나 4시간여만에 숨졌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한 일용직 노동자 숙소로, 이날 B씨는 몸을 씻기 위해 숙소를 들러 A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건방지다고 생각했고 잠이 든 B씨를 죽이려 2차례 불을 질렀지만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아 흉기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하려는 확실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A씨가 B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